

## 적인가 동지인가 “정체의 모호함이 영화 매력”

### 영화 ‘밀정’ 이정출 역 송강호 베니스 영화제 초청...호평 받아

김지운 감독의 영화 ‘밀정’은 누가 밀정인지 가려내는 서스펜스를 추구하기보다는 일정 강점을 배경으로 항일과 친일을 오가며 살 수밖에 없었던 한 개인의 인간적인 고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화가 이런 방향성을 굳힐 수 있었던 데는 송강호라는 배우의 공이 크다. 그가 한때 상해 임시 정부를 위해 일했던 조선인으로 일본 경찰이 된 이정출 역을 맡아 그 내적 갈등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기에 누구라도 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아픔이 잘 드러난다.

영화적으로 중요한 이정출의 변심이 현실적으로 그려졌는지에 대해서는 보는 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송강호는 이에 대해 감독의 말을 빌려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변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정출의 정체가 모호한 점이 우리 영화가 추구하는 인물의 모습”이라고 했다.

송강호는 이 작품을 선택한 계기에 대해 “이야기의 콘셉트랄까. 일본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와 이야기를 많이 접해봤지만, 희색빛의 시선, 암울한 시대를 회화적 느낌의 인물 구성이 색다르게 다가왔다”며 “또한 김지운 감독과 같이 일한다는 점이 컸다”고 말했다.

이정출은 일본 경찰치고는 악랄하지 않고 유화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후에 변질을 염두에 둔 설정인지에 대해서는 “의열단장인 정채산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미끼를 던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면에서 유화적인 입장이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을 염두에 뒀다면 처음에 더 악랄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을 것이다. 이정출의 정체가 모호한 점이 우리 영화가 추구하는 인물의 모습인 것 같다. 사실 그 시대를 살아가려면 모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정출은 그 순간에도 파국을 원하지 않은 것 같다. 김우진을 말리면서도 하시모토에게는 이렇다가는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정채산의 대사처럼 이정출도 마음의 빛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자기는 어느 편을 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송강호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은 다가왔다. 결정해야 할 때는 좋은 쪽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점이 우리 영화의 묘미인 것 같다.”

변절자임을 설정하고 연기했다는 의견에는 “어느 한쪽 편으로 설정하고 연기했다면 쉬웠을 거다. 하지만 어느 편에 서지 않은 것이 이정출의 매력인 것 같다. 영화가 이야기하는 점도 그런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저도 처음에 이정출이 변신하게 된 동기가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조선인의 핏줄이라고 하지만 관객들에게 보여줄 확실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느 순간 눈빛 하나에 감화될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전향할 수도 있기에 감독은 그런 깊이감으로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독은 사람의 변신을 그렇게 그리면 우리 영화가 그린 세계 자체가 작아 보인다고 말했어요. 제가 한 수 배웠죠. 감독이 어떤 세계를 그리고자 했는지를 느꼈습니다. 이정출이라는 개인의 변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밀정이 될 수 있는 시대를 담았습시다.”

김지운 감독과의 호흡은 잘 맞았다고 밝혔다.

“20년 전부터 같이 작업했지만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어요. 꼭 필요한 이야기는 감독과 나눠야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배우 자신의 감성에서 나와요. 감독은 그걸 지켜보고 컨트롤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김지운 감독과 공감이 잘 맞는 편이죠.”

촬영 장소인 서대문형무소에 대한 소감에 대해서는 “촬영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지난해 겨울 중 가장 추운 날이었다”며 “영하 십몇 도로 떨어졌다. 감방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지 말이나 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많은 후배가 송강호라는 배우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 부담감이 든다. 후배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구나. 그러나 작품을 때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나태해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저절로 든다”고 말했다.

“베니스영화제에 초청받았는데 굉장히 예상보다 호평을 받았어요. 해외는 장르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만들새나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인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는 어느 국가에서 조금씩 가지고 있으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합뉴스

##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안방극장 접수

2회 시청률 28.1% 압도적 1위

KBS 2TV 새 주말극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 2회 시청률 30%를 위협하며 출발부터 흥행을 예고했다.

29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방송된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은 시청률 28.1%를 기록하며 1회의 22.4%보다 5.7% 포인트 뛰어올랐다.

첫회 시청률은 전작인 ‘아가사 다섯’보다 2.2%포인트 떨어졌지만, 2회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은 ‘아가사 다섯’보다 가까운 시청률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드라마는 초반부터 빠른 전개와 코믹한 상황을 이어가며 흥미를 끌었다. 특히 ‘젠트맨’ 차인표가 라미란과 부부로 만나 빛내는 상황들이 신선하게 다가오며 웃음을 줬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과 나란히 지난 27일 첫선을 보인 MBC TV ‘불어라 미용사’와 SBS TV ‘우리 갑순이’도 2회에서 시청률이 상승했다. 1회 10.4%를 기록한 ‘불어라 미용사’는 2회에서 11.6%, 1회 6.8%를 기록한 ‘우리 갑순이’는 2회에서 8.4%를 각각 기록했다.

이들 드라마도 초반에 각각 탈복과 혼전임신이라는 강렬한 사건을 배치하며 시선을 끌었다.

한편, 이날 방송된 MBC TV ‘육중화’ 시청률은 19.9%, SBS TV ‘끝에서 두번째 사랑’은 8.9%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tvN ‘택시’, ‘굿와이프’ 스페셜 방송

전도연·유지태 등 출연...내달 2~3일 방영

토코소에서 좀체 보기 힘든 배우 전도연이 tvN ‘택시’에 탑승한다.

tvN은 ‘굿와이프’를 성공적으로 끝낸 전도연과 유지태가 지난 27일 ‘택시’ 녹화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윤계상, 김서형, 나나까지 ‘굿와이프’의 주연들이 함께 한 이번 ‘굿와이프 특집’은 ‘굿와이프’가 방송되던 시간대에 편성돼, 오는 2~3일 오후 8시30분에 방송된다.

이에 따라 ‘택시’는 30일과 9월6일에는 결방된다.

한편, tvN은 새로운 금토 드라마 ‘더 K2’를 오는 23일 오후 8시 첫선을 보인다. 그 전까지는 이 시간대 특선영화로 편성을 대체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일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블로그 폼지락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추천 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안녕 우리말	00 이웃집 찰스(재)	0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재)	00 닥터 365 05 특집 다큐멘터리 (문명)
12	00 KBS 뉴스12	재1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코 콘서트 화통(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코쇼 가요1번지) 55 별별가족		20 문화사색(재)	55 TV블로그 폼지락
2	00 특집다큐 행복한 경제의 탄생(재) 50 다큐 공감(재)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5 내꺼야 홀룩 30 꾸러기 시사고실	00 나홀로 세계여행2(재) 55 TV블로그 폼지락
3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트윈생체제	00 자동차부착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뚝? 퓌키즈스쿨 55 파워배틀 외치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독 30 SBS 뉴스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행전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폼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맨 인 블랙박스
9	00 KBS 뉴스9	55 1대 100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4차 산업혁명 특별기획 2부작 (기계와의 대결) 55 방송의날 기획 송터 VR 특집	00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0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려)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우리동네 예체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2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재) 30 인간극장 스페셜(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름다운 (삼국지 이릉대전)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어묵 떡볶이와 파스타 셀러드)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디 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덩 유치원1~3 08:45 부흥! 부흥!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출동! 슈퍼윈스 09:30 이암! 스페이스 정글 09:40 아버지의 귀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감(재) 12:40 지식채널e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3:35 뷰티풀 코리아 (1억4천만 년의 기억, 우포)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캐니멀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래빗 15:20 아동명명 귀여워 15:35 오솔상자 15:45 코코몽3 16:15 방구장이 뽕뽕이(재) 16:30 부릉! 부릉! 브루미즈(재) 16:45 덩동덩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 17:45 꼬마버스 타요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4 19:00 소피 루비(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갯배위 미역 채취) 20:40 다큐 오늘 <홍도 앞바다의 횡배> 20:50 세계테마기행 <중국한시기행8 황해1 2부 정해지기> 21:30 한국기행 <비밀의 문이 열리면 2부 부두의 전설>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미안아에서 온 남매>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30일 (음 7월 28일 甲申)

<p><b>子</b></p> <p>48년생 함터라도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60년생 충분한 분석과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72년생 조금만 비켜서면 만사가 해결된다. 84년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능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3, 08</p>	<p><b>午</b></p> <p>42년생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54년생 열린 마음으로 투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생산성을 제고한다. 66년생 준비하다가 하루 해를 다 보내게 될 수도 있느니라. 78년생 파격적인 시도가 형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9, 37</p>
<p><b>丑</b></p> <p>49년생 확실하지 않으면 관여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무모한 실행은 손해만 자초할 뿐이다. 61년생 입장의 차이에 따른 참여나 대립이 예상된다. 73년생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별로다. 85년생 혼란스러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98</p>	<p><b>未</b></p> <p>43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55년생 운운만 잘 한다면 큰 이익을 꾀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67년생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79년생 재료가 좋아야 결과가 또한 훌륭한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4, 75</p>
<p><b>寅</b></p> <p>50년생 계획이 구체적이고 내용성 있어야 하는 법이다. 62년생 실제적 관계를 가지면서 수긍하게 될 것이다. 74년생 관계의 개선이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다. 86년생 겉보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56, 97</p>	<p><b>申</b></p> <p>44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도다. 56년생 내키지 않는다면 굳이 행할 필요도 없으니라. 68년생 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오는 것을 막으려 마라. 80년생 이해득실만으로 존폐를 결정하는 모순이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70</p>
<p><b>卯</b></p> <p>51년생 지나리하게 파악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63년생 당장 이익은 없어도 가까운 시기에 길경으로 이어지겠다. 75년생 원만한 상태이니 현재의 형국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87년생 생 끝없이 반복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18, 58</p>	<p><b>酉</b></p> <p>45년생 평시에 가졌던 의문이 풀리리라. 57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69년생 새로운 것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81년생 세대에 좌우되지 말고 본래의 뜻대로 하라. 행운의 숫자 : 99, 46</p>
<p><b>辰</b></p> <p>40년생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이의 것이다. 52년생 생활할 것이다. 64년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6년생 오매불망하며 기다려 왔던 바에 보람이 있을 것이다. 88년생 상태의 뜻을 받아 줌이 결과적으로 나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84</p>	<p><b>戌</b></p> <p>46년생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다. 58년생 구태의연한 과정을 해소할 대안이 절실하다. 70년생 썩은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니 감안하고 대응하라. 82년생 쉽게 잠들었다면 머지 않아 곤란에 처해진다. 행운의 숫자 : 26, 79</p>
<p><b>巳</b></p> <p>41년생 빗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53년생 두고두고 잊지 못할 일이 생긴다. 65년생 부단한 정진 속에서 해안이 떠오를 것이다. 77년생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아야만 실재를 파악할 수 있다. 89년생 상태의 속사정은 따로 있다. 행운의 숫자 : 72, 88</p>	<p><b>亥</b></p> <p>47년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부를 것 아니라. 59년생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71년생 부담감을 느낀다면 자제하는 것이 알차다. 83년생 마주 보고 대화하면 풀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1, 17</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